

광명소방, 국회의원·시의원과 함께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역 현장 점검 실시

집중호우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 보고와 침수피해 우려지역 방문하여 위험요소 살피

문수철 기자 aszx1230@hanmail.net

등록 2024.06.28 15:31:58



▲ 집중호우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 보고

[경기헤드라인=문수철 기자] 광명소방서(서장 박평재)는 지난 27일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역 현장 방문과 소방활동 종합대책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.

하안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김남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영식 시의원, 현충열 시의원, 광명시 안전총괄과장, 하수과장, 하안4동장 및 광명시 공무원, 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, 의용소방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.

올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확장되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,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광명소방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대비·대응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.

주요 추진사항으로는 ▲광명시 '인명피해 우려지역' 안전컨설팅, ▲지하차도(통로) 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카드 제작 관리, ▲수난 구조장비, 수방장비 확보 및 점검, ▲기상특보 발령 시 '상황대책반' 운영, ▲인명피해 위험지역 등 관내 순찰조 확대 운영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.

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"올해 여름 장마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"며 "집중호우 발생 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하겠다."고 전했다.

Copyright @gheadline.co.kr All rights reserved.
